日, 코후쿠지서 동금당원 발굴 화제

〈東金堂院〉

기존 학계 정설의 2배 규모
복원 여부에 학계 귀추주목
회랑 길이만 100m이상 눈길
내부구조 기존학설 '재검토'

박영빈 객원기자

세계문화유산이자 천년고찰로 유명한 일본 나라의 코후쿠지(興福寺)에서 동금당(東金堂)을 중심으로 한 가람인 동금당원(東金堂院)이 새롭게 발굴돼 화제다. 그간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진 규모의 2배 크기로 앞으로 복원 여부의 귀추에 학계와 불교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코후쿠지는 669년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가였던 후지와라 가문의 사찰로 건립 되어 오랫동안 나라의 7대 사찰 중 한 곳으로 번성했다. 여러 차례 전란과 정치적인 이유로 사세가 기울긴 했으나 여전히 나라의 대찰로 유명하다. 코후쿠지는 수많은 불교문화재와 역사성을 인정받아 1998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동금당원은 726년, 쇼무천황이 상황인 겐쇼천황의 건강을 발원하여 건립한 구역으로, 코후쿠지의 자랑으로 불리는 목조 오층탑도 코묘황후의 발원으로 시기에 함께 건립됐다.

현재 동금당원은 사찰의 역사와 함께 모두 소실과 재건을 반복, 현재의 동금당원 건물은 대부분 15세기에 재건된 것이다.



새롭게 발굴된 코후쿠지 동금당원 유적.
사진출처=나라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를 담당한 일본의 나라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현존하는 동금당원의 서쪽을 발굴조사한데 이어 올해 7월부터 동금당 북동쪽의 약 330제곱미터를 발굴, 회랑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초석들과 3단으로 축조된 석조기단, 빗물 배수구 등을 발견했다. 특히 회랑초석의 흔적은 동쪽으로 더 뻗어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문화재연구소 측은 "지금까지 확인 된 유적들과 더불어 회랑의 길이만 100m 이상으로 확인됐다. 발굴된 배수로의 길이만도 28m에 달한다. 회랑의 기둥은 모두 직경 30cm 가량의 기둥들을 세워 조성해 일반적인 회랑과의 차별성도 돋보인다. 이번 발굴로 동금당원의 규모가 기존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던 규모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창건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발굴됐다고 전했다.

연구소 측은 "9세기경에 코후쿠지의 역사와 규모를 기록한 문헌들에서 본래 동금당원에 현존하는 오층탑과 동금당외에 다른 건물들도 존재한다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금당원의 내부 구조에 대한 기존의 학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굴조사를 담당한 가키나카 켄지 연구원은 "이번 발굴은 이 동금당원 구역에 대한 창건 당시의 규모나 성격을 새롭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왜 이렇게 큰 규모가 필요했는지? 동금당이 견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인지? 등 앞으로 추가되는 조사와 추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후쿠지사의 집사장을 맡고 있는 다카와 료슌 스님도 "나라에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쇼무천황과 코묘황후의 발원으로 세워진 동금당원이기에 평범한 발견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창건 당시부터 불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로 특별히 세워진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발굴조사는 지난달 말일로 종료됐으며, 코후쿠지와 나라문화재연구소 측은 "조사의 종료 후에도, 출토품의 정리, 분석이나 문헌 사료, 회화 자료 등의 재검토 등을 통해, 동금당원의 실체, 그리고 코후쿠지의 역사의 해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印, 국제불교도연맹 창립 10주년 기념식

세계 불교 대표단 모여 룸비니 센터 건립계획 발표

11월 5일 뉴델리서… 화상회의도
"세계적 수준 시설 될 것" 기대



뉴델리에서 열린 IBC 10주년 기념 법회에서 헌등하는 링 린뽀체(우측 끝).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국제불교연맹(IBC)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5일, 뉴델리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불교대표단들과 함께 기념식을 봉행했다. 비대면 화상 회의 프로그램도 함께 활용, 시간과 공간에 구애 없이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현대세계에서 불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행사에 대해 11월 8일 국제 불교 뉴스 전문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주빈으로 참석한 티베트 불교의 링 린뽀체가 단상에 모셔진 석가모니 불상 앞에 헌등 하는 것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IBC의 활동과 불교에 관한 단편 영화가 상영됐고, 네팔 룸비니에 건립될 '국제 인도 불교문화유산 센터' 에 대한 계획이 공개됐다. IBC 사무총장 아비짓 할데르는 올해 초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네팔총리가 함께 탄생성지인 룸비니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양국의 지원하에 IBC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국제 불교센터가 성공적으로 건립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비짓 사무총장은 "성지순례자들과 불교문화에 관심을 가진 관광객들을 위해 룸비니에 세워질 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시설이 될 것"이라며 "센터는 부처님이 탄생후 첫 일곱 걸음을 걸었을 때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었다는 설화를 모티브로 연꽃 모양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부처님 생애의 주요 장소를 순례하는 것은 오랫동안 불교수행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와 네팔은 수년 동안 성지순례자들을 위해 각 순례지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이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여행경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IBC가 현재 룸비니 외에도 인도와 네팔정부의 협력 하에 각 불교성지들의 복원과 국제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IBC 공동 사무총장인 장춥 최댄 린뽀체 역시 "IBC는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달성했다. 모든 것은 불교의 국제화를 위한 전세계 불교도들의 협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각국에서 모인 불교대표들은 각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국제화하고, 종교적인 담론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불교 가르침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불교대표 담바 아유쉬브 스님은 "인도와 러시아는 종교뿐만 아니라 외교적 정치적인 관계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이 근간에 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중생들에 자비를 가져야한다"고 발표했다. IBC는 이날 전세계 불교도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줄이고, 평화의 메시지를 더욱 넓히는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불교 역할이 강조돼야한다"고 제시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기원전 1~3세기 간다라 불교 문헌 디지털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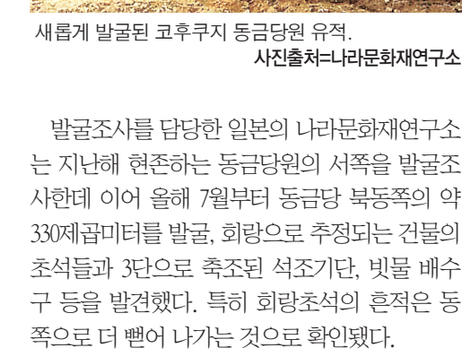
발견 필사본 중 最古 추정
석가모니 전생담 등 담겨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간다라 불교문헌이 마침내 디지털 복원에 성공했다.

미국 시카고 매체 트리뷰 등 외신은 11월 13일 "기원전 1~3세기 작성돼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으로 추정되는 간다라 불교 문헌이 마침내 디지털화됐다"며 "이는 현대 보존 기술과 전통문헌연구학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지난 2세기 동안 발견된 다른 간다라 불교 문헌들은 분실되거나 파괴됐다"며 "이 문헌들도 발견 당시에는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지만 다른 문헌들에 비해선 보존 상태가 좋았다. 복원 작업을 거쳐 디지털화에 성공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고문헌은 자작나무껍질에 산스크리트어의 파생어인 간다리어로 필사된 두루마리 형태의



최고 필사본으로 추정되는 간다라 불교문헌.
사진출처=트리뷴.

불교 경전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의 전생담과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13명의 부처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 등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북부 간다라 지역에서 발견돼 민간 수집가가 보관해 오다 현재까지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보관돼왔다.

해당 매체는 워싱턴대학의 리차드 살로몬 교수의 주장을 인용해 "이 문헌들이 부처님 승단으로부터 적통을 계승한 법장부(Dharmaguptaka)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디지털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내용 중에는 불교의 경전을 경(經)·율(律)·논의 3장으로 나눌 때에 논장을 일컫는 '아비달마' (Abhidharma) 관련 구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중국어로 기록된 문헌 등에 따르면 간다라는 아비달마 연구의 중요한 중심지였다"며 "이제 처음으로 (중국 문헌이 아닌) 간다라 아비달마 경전의 초기 사례를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알려진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중국어 및 기타 번역본으로 된 초기 인도 불교 문헌들과 비교해 초기 간다라 불교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간다라 민속과 전통 등 내용이 포함돼 기존에 발견된 문헌보다 더 당대 지역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유나이티드항공, '불교도 차별'로 4억달러 배상

종교적 이유로 AA 참석 거부 항공조종사에 패소

유나이티드항공이 종교적 이유로 AA(익명의 알콜중독자 모임) 참석을 거부한 불교도 항공조종사에게 30만5000달러(한화 약 4억)를 지불하게 됐다.

11월 13일 야후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최근 "유나이티드항공이 알콜 의존증 진단을 받은 후 종교적 이유로 AA 참석을 거부한 소속 조종사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30년 동안 근무한 해당 조종사는 알콜 의존증 진단을 받고 연방항공청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분실했다. 이에 연방에서 보증하는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 인증을 다시 취득하려면 AA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AA가 기독교 교리에 기원을 뒀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AA가 제공하는 12단계 세부 프로그램이 '신을 인정해야 한다' 는 취지의 기독교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돼 종교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종사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



유나이티드항공 모습. 사진출처=야후뉴스

하라고 했지만 항공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EEOC는 2020년 조종사를 대신해 유나이티드항공을 고발했고, 법원은 유나이티드항공의 이같은 조치가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장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종사에게 손해배상금 30만5000달러를 지불하고 향후 AA가 아닌 대안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EEOC 소속 변호사 제프리 버스틴은 "고용주는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기 위해 정책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AA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는 직원을 위한 대안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